

민족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 개신교

유 호 준*

I. 들어가는 말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설명할 때 흔히 격변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사회가 종교를 반영하고 종교가 사회를 반영한다고 할 때 같은 시기의 한국 종교사 역시 격변기로 기록될 수 있다. 물론 종교는 그 특성상 사회가 격변기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이 변할 수는 없다.¹⁾ 신앙 형태나 신학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종교인은 활발한 대사회적 발언과 참여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적 참회, 즉 자기 수양을 통한 모범의 전형으로서 대중속에 다가감으로써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종교인으로서의 영적 성숙을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민족사의 맥락에서 보면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 독립을 향한 기도와 몸부림,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 분단의 역사적 시련을 안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 행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II. 역사를 보는 기독교적 관점

1) 3단계로 구분되는 역사

* 목사. 한국기독교선교단체협의회장

1) 예를 들어 구한국 시대 들어온 기독교나, 일본 식민치하에 있던 기독교나 또는 그것을 벗어나 미군정시대, 서울에서 90일 동안 인민 공화국 통치를 받은,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기독교는 사회적인 변환, 변동은 있어도 그 변동된 사회 속에서 걸어 온 기독교의 길은 일관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기독교는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하여 왔다.

제1단계는 하나님의 단독 행위의 역사이다. 천지 창조에서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이 단계에 속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 작업을 완성하신 기간을 6일로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셈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시간이다.²⁾

제2단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합작으로 이룩한 공동 역사이다. 제2단계의 역사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약시대를 말하고, 둘째는 예수의 탄생에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간이며, 셋째는 예수의 부활과 재림까지의 중간 시대를 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에 속한다. 기독교는 이 기간을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 또는 복음 선교의 시대로 호칭한다.

제3단계는 부활 승천한 그리스도가 역사의 심판자로 재림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영과 육이 함께 부활체로 바뀌어 공중에 휴거되어 그리스도께 영접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시대를 거친 후 사탄과의 대결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써 새로 전개되는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된 새 천국시대가 도래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 출발, 다시 하나님의 단독역사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를 보는 기독교적 관점이다.

2)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

역사학자 중에는 역사를 보이는 역사(visible history)와 보이지 않는 역사(invisible history)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이들이 있다. 전자가 인간이 관여해 창출한 사건들의 역사라면 후자는 인간의 사고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역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고사에 “人命在天”, “順天者興 逆天者必亡”, “謀事在人 成事在天”, “盡人事待天命”이라 하였고, 성경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정성도 허사”라고 했다. 위에 열거된 말들은 하나같이 인생사는 모두 하늘 또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역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2) 불교에서는 역겁년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 즉 어떤 능력자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는 것도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란 그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다.

III. 기독교의 전래와 일제 강점기의 활동

1) 개신교의 전래

이 땅에는 개신교에 앞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다. 개신교보다 1백여년 빠른 1773년에 이승훈이 명나라 사신단 일행에 끼어 중국 북경에 갔다가 그곳에서 영세를 받고 귀국길에 천주교에 관한 서적을 갖고 들어옴으로써 전파되기 시작했다.

천주교보다 1백년 늦은 1885년 미 북장로교회의 H. G. 언더우드와 미 북감리교회의 H. G. 아펜젤러 부처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선교사로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한국 개신교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 상주 선교사로는 H. N. 알렌이 있다. 그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처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1년전 미국 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의료 활동을 벌였다.

2) 초기 활동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부상을 입은 민영익을 의료 선교사로 나와 있던 치료해주게 된 것을 계기로 알렌은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 황실의 시의가 되어 궁중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된다. 황실과의 이런 관계로 광혜원을 설립하게 되어 일반인을 상대로 의료사업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왕을 비롯한 정부 고관들의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 이해와 의료 선교를 통한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으로 초기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3) 일제하 한국기독교 : 독립 운동의 전초 기지

한국교회는 구한말과 36년간의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 밑에서 주권회복과 독립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한국교회는 구한말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주권회복

운동을 벌였으며, 1907년 성령 대부흥운동, 신민회, 105인 사건, 3.1운동 등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 중 기념비적 사건의 중심에 한국 개신교인들이 있었다. 1907, 1908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운동은 한국기독교의 민족적 위기의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생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운동이 민족 대부흥운동이었던 것이다.

100만인 전도 운동으로도 불리는 이 대부흥운동은 원산지방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땅에 선교가 시작된지 20년 밖에 되지 않은 나이 어린 교회가 1백만명을 전도하겠다는 것이었으니 꿈치고는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꿈속에는 순수한 복음전도의 소원만이 아닌 일본에 찬탈당한 주권을 되찾겠다는 강렬한 소원도 내포되어 있었다.³⁾

이 밖에도 한국 기독교는 물산 장려 운동, YMCA(황성기독교청년회)운동, 보이 스카웃 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제에 저항하는 중심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4) 일제의 교회 탄압

일제에 대한 교회의 저항은 교회의 탄압을 필연적으로 불러들였다. 일제는 먼저 기독교 연합 사업단체의 해체 내지는 유명무실화를 통해 교회를 탄압했다. 1918년 3월 YMCA회관에서 장·감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1924년에는 조직을 확대해 각 선교사회와 기독교 사업단체들로 연합된 『조선기독교 연합공의회』를 조직했으나 1936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⁴⁾ 이 단체 해산 2년 후인 1938년 5월

3) 여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백만 명이 믿어 공동 서명을 해서 미국 정부에 호소를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얘기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한 성과를 가지고 정치 운동을 하게 되면 한국 기독교는 교회에 의해 정치집단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다. 1905년, 1906년에 걸쳐 그런 운동이 교회안에서 일어났다. 2년후인 1907년 원산에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 하다가 성령 운동을 일으킨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기독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4) 을사조약으로 인해 해외의 공관들이 모두 폐쇄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창구로 남은 것은 기독교 밖에 없게 된다. 일본인들은 한국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했는데 기독교 때문에 완전히 못했다. 기독교 대표자들이 미국에도 가고, 1911년 암스테르담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에 한국 대표로 선교사들이 갔으며, 예루살렘에서 제2차 국제선교협의회

8일 총독부는 서울 부민회관에 국내 교회 대표와 일본인 교회 대표들을 초치하여 『조선기독교 연합회』를 조직하게 하고 회장에 일본인 니와(丹羽清次郎)를 앉히고 종로 YMCA에 있던 사무실을 북창동에 있는 일본인 YMCA회관에 두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일본인 지도하에 예속시켰다. 또한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노골적으로 탄압과 박해를 가해왔다. 1938년 9월과 10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총회에서 이를 결의케 했고 선교회에서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학교, 병원, 문서관 및 자선사업 기관들을 줄줄이 폐쇄시켰다.

세계 2차대전 기간 중에는 연합국과 깊은 관계에 있던 교회와 사업기관들을 적성기관으로 몰아 강제로 해산 또는 폐쇄시켰다. 구세군, 성결교회, 성공회 등의 교단과 CLS, 대영성서공회 등의 기독교인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인사들이 속속 투옥되어 수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던 시기가 바로 그 무렵이다.

5) 교회가 하나될 수 있었던 동력⁵⁾

해방 이전 교회는 신문물의 도입과 전파 등을 통해 서구의 합리적 전통과 사상을 이 땅에 이식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전통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라는 폐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식 고양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저항의 거점이 필요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대중들에 대한 전도 뿐 아니라 개회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해방 전 한국교회는 『항일』이라는 대명제 아래 뭉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회를 했을 때 한국 대표로 선교사와 더불어 장로교의 정일관씨와 감리교의 김활란씨가 참석했다. 본래 IMC에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를 받은 피선교 교회 대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단체가 아니면 참석을 못한다. 1938년 인도 마드라스에서 제3회 세계 대회를 열게 됐는데 한국사람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 해산시켰다. 그 이유로 1938년 인도 마드라스의 세계대회에는 한국 교회 대표가 참석을 못하게 됐다.

- 5) 당시는 교파 분열이 있지 않았다. 일제 시대에 한국 사람이 스스로 교파 분열한 것은 없었다. 선교사가 들어 와서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받은 교인들이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회에 참석하게 되니까, 파송한 외국 모교회에 따라 장로교도 되고 감리교도 되고 성결교도 되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 해방 전에 자생교파라는 것은 한국 개신교에 없었다.

IV. 해방 후의 한국 개신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됐으나 또다시 풀기 어려운 역사의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어쩌면 일제로부터의 해방보다 풀기 어려운 남북분단이라는 과제는 민족과 함께 한국 교회가 기도와 회개로써 풀어나가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기도 하다. 민족 분단이라는 현실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형을 만들어냈고 개신교 역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선교활동과 정치 권력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노동, 인권, 민주화 통일운동 등 사회참여적 교회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1) 세계 최고의 교회 성장률과 그 요인

해방 직후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해방의 기쁨을 안고 부흥전도 집회를 하면서 당시 50만명의 신자를 지닌 교회가 300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꿈⁶⁾을 가지고 부흥 전도 계획을 세워 교인들의 기도 제목으로 내걸었다.

이 꿈속에도 두 가지 과제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해방된 자유의 환경에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확장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새 과제로 등장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호소해서 성취하자는 것이었다. 이 무렵 사회는 급변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북한의 우익 인사들과 기독교 지도 인사들의 대거 월남과, 미군정 하에서 우익과 좌익의 갈등과 투쟁, 국제적으로

6) 93년 한국종교연감에 집계된 것은 40년도 무렵 개신교가 42만 몇천 명이었다. 태평양 전쟁 시 교회가 외부로는 위축이 되지만, 내부로는 위축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해방이 됐을 때 적어도 50만명은 상회하지 않았겠느냐고 본다. 왜냐하면 1905년 교회가 백만 명을 전도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는 교회 확장도 있지만 독립이라는 호소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즉시 응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에 호소한 그 때의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민족 해방이라고 나는 본다. 따라서 백만 명의 반은 됐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한다. 민족 광복은 국제 정치 사회가 변해서 파생된 결과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므로 역사적인 복을 받은 것이다.

7)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는 꿈을 키워 온 교회이며, 그 꿈이 자라 가는 것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불어닥친 신탁통치 문제 등으로 사회는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공산군의 남침으로 국민 생활은 어느 한 곳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무너져 버렸다. 이런 과정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기적적 성장과 부흥발전을 거두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요인을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월남 교인들의 전도 활동

해방전 북한의 교회는 그 교세가 남한교회의 3분의 2 이상이었다. 해방 후 국토 분단으로 북한 교인들이 공산체제에 탈출하여 월남 이주가 시작되었고, 월남한 교인들은 생업상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피난생활을 펼쳤다. 여기서 남한 기독교회는 급작히 교세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2) 형무소 전도 운동

한국 교회는 미군정과 교섭하여 일제시대에 일본 불교 승려들이 형무소 수감자들의 교화를 담당했던 것을 기독교 목사들에 의해 교화사업을 하게 하였다.

(3) 군 복음화 운동

정부수립후 48년에 NCC가 앞장서서 군전도를 국방부에 교섭하였으나 거부되었다.⁸⁾ 한국전쟁 중 대구 피난 시절에 맥아더 사령부 종교 고문관 공이랑(William Kerr) 목사가 주선하여 맥아더 사령관 명의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국군에 군목제를 도입하여 목사들로 군인에게 복음선교를 할 수 있게 제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따라 1951년 한국군에도 종군에서 목사 제도가 설치되고 군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었다.⁹⁾ 한국 교회는 전국 각지에서 소집되어온 수십만의 장정들에

8) 장로교 총회 총무로 있을 때 나는 NCC 총무와 함께 한국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그 때 만난 사람이 인사참모인 이한림 대령이었고, 국방장관은 철기 이범석 장군인데, 그는 기독교와는 아주 먼 관계에 있었다. 이한림 국장이 요청서를 받아서 의논해 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안된다고 하였다.

9) 정부가 대구에 피난 가 있을 때, 맥아더 사령부의 종교 고문관으로 있던 사람이 윌리엄 커라고 하는 일본 2세 선교사였다. 그가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 군대에 복음을 전하는 채플 쿨을 두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여 맥아더의 승낙을 받았다. 맥아더의 인천 상륙 작전 후 일시 중단이 됐다가 제 2차 후퇴를 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배은회 목사와 함께 대통령에게 '젊은 목사들에게 전장에 나가서 일선에서 쓰러져 가는 우리 젊은 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죽을 장소를 달라'고 했다. 그 후 부산에서 51년에 군목제가 실시

게 복음을 통한 정신무장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각 군부대는 복음의 황금어장으로 바뀌어 갔다. 군목 업무가 진행되면서 각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천명의 군인들에게 합동 세례를 베풀 만큼 교인들이 대량으로 군영내 교회에 몰려들었고¹⁰⁾ 또 그들이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발길 닿는 곳에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교회가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4) 경찰 선교

1970년대 유신체제 선포로 국내 정치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교회도 강단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소리가 거세게 일자¹¹⁾ 경찰이 교회 설교를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교회와 경찰과의 관계는 험한 대치 상태에 떨어졌고, 젊은 교역자들 중에서 긴급 조치령에 의해 체포되어 중형에 처해지는 사건까지 생겼다. 교회는 태도를 바꾸어 경찰관과 유치장에 구금된 죄수들에게 전도 활동으로 접근하여 대치 상태도 풀고 복음도 전하자는 뜻을 세우고 정부와 교섭하여 1972년 교회와 경찰협의회를 조직하고 경찰 선교에 나섰다. 처음, 경찰서 단위의 경목활동으로 출발하여, 최후에는 치안본부에 경목실을 설치하고 경목실장을 배치하여 전국 경찰 선교운동을 행정적으로 지휘하도록 하였다. 경찰 선교 운동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각 교회는 경찰 선교비를 교회 예산에 책정하여 경목실 운영과 경목활동을 크게 지원하고 나섰다. 이 운동을 통해 경찰은 교회활동을, 그리고 교회는 경찰의 대민활동을 지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5) 정부행정기관, 각기업체, 사회단체의 신앙운동

정부의 각 행정기관과 각 기업체 및 사회단체마다 신우회가 결성되어 그 기관

되었다.

- 10) 사단별, 연대별로 3천명씩, 4천명씩 한꺼번에 세례를 주는데 군목으로는 모자라 일반 지역의 목회 목사들이 가서 일시에 수천명씩 세례를 주었다.
- 11) 7.4 남북공동성명시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 각 대학생들이 반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주모자들을 데려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기독교인 출신들이 많았다. 교회 목사의 설교를 사찰하니까 대개의 강당의 설교가 전부 반체제였다. 그러니 교회와 정부가 마찰과 대립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정치집단이 아닌데 언제까지나 이런 정치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경찰과 대립을 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해서 교회가 의논해서 우선 경찰 선교를 통해 서로 문호를 열고 접근을 해 보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는 데서 경찰 선교 운동이 시작을 하게 된다.

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동료 직원에게 전도 활동을 펼쳐 직장 신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신자와 불신자 간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2) 한국 경제부흥의 기적과 교회성장의 일치

한국 교회는 내적 외적 환경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했다. 해방 당시 50만 명(추정)에 불과했던 신도가 60년대 말에는 정부 통계로 3백만을 넘어섰다. 경제 성장과 교회 성장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 한국 교회 발전을 바라보는 교회역사가들의 주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한국 개신교의 성장 과정은 1885년부터 1910년까지 1단계, 1911년에서 1930년까지 2단계, 1940년에서 1960년까지 3단계, 1960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4단계로 나눈다.

첫단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독교가 인간해방의 정신을 내세우며 포교를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속에서 오랜 세월 압제당하며 살아야 했던 상민, 천민, 여성 등이 대거 교회에 입교한 것을 그 반증으로 삼는다.

2단계는 개척정신을 기초로 한 교회 성장이다. 1911년에서 1930년에 이르는 기간에 기독교 지도자는 대거 독립운동에 나섰고 많은 지도자가 옥고를 치르고 희생당했으며 그후 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당한 상황에서 교육과 문화창달에 전념하면서 포교했던 것에서 교회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3단계는 한국사회 혼란기로 8.15 해방과 더불어 조국의 분단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피난민과 이산가족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갈 상태에서 방황할 때 교회가 정신적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4단계의 시기는 국가는 경제 부흥과 국력 신장에서, 교회는 부흥과 교세 확충에서 각각 기적의 성장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0년대는 사회 환경의 여건이 국가의 경제 부흥이나 교회의 교세 부흥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역사의 기적은 현실적으로 일어났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다고 인정하고 싶다. 70년대에 우리 좁은 한반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온전히 합치된 상태에서 거둔 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기적이었다고 규정짓고 싶다.¹²⁾

3) 교회의 정치참여의 공과

교회 자체로는 어느 시대에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닌지를 물어 왔을 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¹³⁾ 하였고, 또 제자들 중에는 예수께서 위대한 권력을 발휘해서 육적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고 왕좌에 오르실 것으로 오판하여 자신들도 영광의 자리를 꿈꾸는 자들도 있었다. 예수는 그런 제자를 향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¹⁴⁾고 하셔서 예수께 대한 제자들의 그릇된 정치 욕망을 물리치셨다. 승천 직전에도 예수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하고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¹⁵⁾고 선언하시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
- 12) 70년대 초부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부흥을 가져 오면서, 우리 국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국제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게 된다. 70년에는 전 국민의 인구비례에서 10%밖에 안 되던 기독교가 문공부에서 집계한 70년 종반의 통계에는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10년 동안 기독교인의 인구 성장률이 우리 국민의 자연 인구 성장률보다 월등히 앞섰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70년대는 기독교가 성장의 기적을 가져온 시기이고,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국력 신장의 기적을 이룬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사회 현상을 볼 때, 교회 부흥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고, 경제 부흥을 가져 오고 국력 신장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사와 우리 국민의 노력이 합쳐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13)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치하에 있었다. 로마정부에 대항하는 의식이 불타 있는 그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선생님, 유대사람들이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고 물었다. 좋다고 하면 유대민족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로마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이 쉽지 않았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다 놓고, “이 화살이 누구 것이냐”하니 “가이사르의 것입니다”하니 예수님이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다. 정치와 신앙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 14) 3년씩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제 아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 않았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다.
- 15) 제자들은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하시면 유대민족이 잃어버린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돌아가시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역사의 교회는 세상 나라와 그 정치 행보에 발맞추는 것에 존재의 의의(意義)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궁극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에 일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나라와 같이 한정된 국경선 안에 묶여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엄연히 섬겨야 할 조국(祖國)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현실 정치에 전적으로 초연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¹⁶⁾ 그렇다해도 교회가 현실 정치에서 직접 뛰어들어 교회의 본연의 역사 사명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해방 후 새로운 민족의 역사의 공동 과제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 일에 주저없이 거래와 더불어 정치행보를 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 몇 가지 예로 ①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민주국가의 수립을 위한 선거운동¹⁷⁾, 49년과 70년 중반에 미군철수 반대운동¹⁸⁾, 제3공화국의 유신체제 반대운동 등에 교회는 거래에 앞장서서 어느 정치 사회 집단 이상으로 열심히 투쟁하였다. ② 1948년의 국기 배례 문제와 80년대의 단군전 건립 운동, 정부의 주일행사 거행 문제 등도 교회는 강력히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③ 48년 여순 지방에서 있었던 국군 반란 상황을 기독교 대표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분열된

자 황망하고 낙담한 처지에 빠졌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또 예수님께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쫓아 다니면서, '생전에는 안 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국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예수님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 16) 교회는 현실 사회와 현실 역사속에 세워져 있다.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섬겨야 될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배양시켜 나가느냐는 것이 현실 교회의 과제이다. 한국 교회도 해방전에는 민족과 더불어 독립운동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105인 사건도 기독교인들 위주이고, 3. 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 해방 후에도 우리 거래의 역사적 대과제인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가 초연한 입장에 설 수는 없다.
- 17)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기독교와 민족진영이 신탁통치에 반대했고 공산주의는 찬성했다. 정치는 아니지만 국민운동으로서 기독교가 앞장선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교회가 정치운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18) 49년엔가 미군철수 문제가 나왔다. 그 때 서울운동장에 8만명의 교인이 모여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을 했다. 공산군이 들어오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을 견지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처럼 양면이 병행되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우익청년들(한청, 대동청, 족청, 서북청)을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하여 우익 청년단체들이 지칭한 장군을 단장으로 대한청년단으로 단일화될 수 있게 한 일도 있다.

4)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와 그 공과

전후 1948년 암스텔담에서 세계교회 대표가 모여 기독교세계교회협의회(WCC)를 조직하고 교회가 두번 다시 사탄적 악에 유린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으고 WCC 안에 6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그 중 제4분과 책임사회 위원회와 제6분과 기독교 국제문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WCC가 세계 석학들을 동원하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문제를 깊숙이 다루고 관여하고 나섰으며 그 중에도 각국의 인권 문제와 사회정의 문제 등을 유엔과 제휴하여 해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우리 한국 교회도 70년대에 NCC 계열 교회 일각에서 산업선교 위원회를 결성하고 노사분규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나섰다.¹⁹⁾

초기에는 사건에 따라 산업선교 위원회에서 나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준 공적도 거두었으나 이 때문에 사주측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접근의 길이 막혀 선교의 길까지 상실한 피해를 받기도 하였다. 교회의 일부 과격한 인사들은 사회정의와 인권문제를 빙자하여 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원조받아 과격한 반정부운동을 한 일도 있었고, 이 때문에 교회가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게서 혐오를 받아 교회의 정당한 활동에 저해를 받기까지 한 일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세상의 그늘진 곳과 어둠을 밝히는 것에 교회와 교인의 삶의 뜻이나 사명이 있는 것을 천명해 주셨는데도 역사의 교회는 자체 희생은 외면하고 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

19) 이 산업선교위원회는 처음 직장선교위원회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년 간 활동한 사람들의 결과는 기업인들의 대변인, 노동자에 대한 대변인역할이었을 뿐, 근로자의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2,3년 후에 산업선교 위원회로 간판을 바꾸고 제일차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동일방직사건이었다. 그 뒤 계속 그런 일을 하자 기업계에서는 산업선교 위원이 기업체에 들어오면 기업이 망한다하여 근로자들과의 접촉이 끊어지게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한 면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으로 해결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해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²⁰⁾ 세계 교회들 중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투쟁하는 교회는 교세가 현격하게 위축된 반면, 묵묵히 교회 사명에만 충실했던 온건 보수 교회는 계속 성장의 도를 높이 올린 것을 보여 주고 있다.

5) 고도 성장 속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특징 몇가지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세계에서 성장이 가장 빨랐다는 것이다. 1885년 이 땅에 개신교가 전래된 지 불과 27년밖에 되지 않은 때 총회를 조직하여 자치, 자영, 자력 전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²¹⁾ 급속한 성장은 전 국민의 25%를 차지하는 교인 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에 종사하는 선교사의 수가 무려 4천명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교파로 분열되었다는 부끄러운 모습이다.²²⁾ 그러나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분열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인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20) 자유당 말기에 선거를 하는데 교회 표를 모아주는 운동에 앞장섰다. 처음 대통령 선거와 지역선거에서는 폐단이 심하지 않았지만, 차차로 한 교회의 교인중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가 한 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기독교는 관여하지 않도록 일선에 나서서 한 일이 있다. 이렇게 현실 교회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다.

21)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self-propagating, 즉 자치, 자영, 자력 전도의 세 가지를 갖춘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27년 밖에 안되었을 때 이 3가지 조건이 완전히 구비돼 있었다. 총회조직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치를 하게 되고, 경영도 자력으로 하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보내 중국 사람에게 선교하였다. 개신교가 단독 교파로 선교 사업을 한 것은 그것이 처음이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 첫번째 것, 자랑스러운 것은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22)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너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으면 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다. 도그마를 너무 강조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교리를 너무 강조하면 교회의 분열이 온다. 이것은 교회가 일치성을 잃어서 교파로 분열된 것이다. 50년 안에 백 수십 개 교파로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한국 교회의 분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일 수는 없다. 예수는 역사의 교회를 가리켜 『나의 교회』라고 하셨다. 기독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출발했다. 하나의 교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복음의 이해와 정치 문화와 환경 등의 차이에 의해 나뉘게 된 것이다. 교회는 보수신앙과 정통교리를 고집하려는 지나친 욕구가 부지중에 개입되면서 갈라졌다. 의식과 제도에 치우쳐 성경에서 멀어졌던 중세기 교회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듯이 오늘의 교회의 일치성을 잃은 한국 개신교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서의 건전한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IV. 맺는 말

1) 선교 2세기를 걷고 있는 한국 개신교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종교 역시 도전의 세기다.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단문제의 극복을 생각해야 하고 인류를 생각할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던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그 길에는 질적 성장이 따라주지 못하고 양적 성장에 치우친 우리 교회의 물량주의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교 2세기를 맞아 이 땅에 뿌리내린 한국 교회는 전통과의 화해를 도모해야 한다. 한 사회의 도덕적 보루로서 종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위치한 곳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 극복을 위한 비전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

한국 교회는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족의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1백여년 전 선교사들이 가져온 화분속에 아직도 그대로 담겨진 교회의 모습에서 탈피해 우리의 얼굴을 가진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²³⁾

23)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토착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었다.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기독교화 되어야지 기독교가 한국화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 민족을 찾아 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분 속에 있는 복음이 짝이 트고 성장을 하고 결실을 거두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온 것인데, 덩치가 커지면 뿌리가 점점 뻗어 가야 되는데 이 분속에서 뿌리가 아무리 뻗어 가 봤자 그 안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개신교가 민족사의 운명에 참여하느라 노력해 왔고 고난도 당했으며 이제는 상당한 교인 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 있지만, 한국 사회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 아직도 이질감을 느끼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 교회와 사회 일반의 문화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2) 올바른 기독교 문화의 뿌리내림을 위한 제언

우리 한국은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며 3개층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샤머니즘 문화와 불교문화, 유교문화가 그것이다. 이들 문화는 긴 역사를 통해 새로운 문화가 안겨주기 마련인 이질감을 해소해 왔다. 그 결과 이들 문화는 우리 민족 생활 속에 뿌리 깊이 터잡고 있다. 이들 문화가 전통으로 구축된 토대 위에 기독교라는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당연히 문화적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독교가 그 문화적 충돌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고 다른 문화들처럼 『한국인의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강한 성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인의 종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지금처럼 탄탄대로를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뿌리가 부실한 나무가 가지와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꼴이 되는 것이다.

몇 해전 헌정회가 사직공원 안에 단군전 복원을 추진할 때, 개신교는 우리의 신앙 원리에 입각, 그것을 반대한 일이 있다. 이 때 헌정회 측이 기독교를 향해 외래종교가 자생종교를 억압한다고 비난하고 나서자 국민 일부층에서는 그것에 동조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기독교가 미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 여겨진다. 교회일치와 분단의 치유를 위한 노정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기독교 문화권 형성을 통한 이 땅에 뿌리내림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와 전통문화와의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관혼상제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이 제사 문제는 그 제례문화의 원형으로 되돌아간다면 기독교 문화와 전통 제례문화와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구라파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교로 가려 하지 말고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의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다.

는 거리낌없이 서로의 접목이 가능하다고 본다. 원래 우리 선조들은 조상의 기제사를 4대조까지만 사당에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기일(忌日)에 봉제사 하였고 그 윗대는 시제(時祭)로 묘소에서 드려 왔다. 제례는 본래가 효친숭조 사상을 바탕으로 삼아 우선은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을 불망하고 그 분들의 공을 사모하면서 자손들에게 효친 사상을 장려하려는 뜻에서 치러온 행사였다.

여기까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찬성하고 장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기제사의 이러한 순수한 정신이 점차 변질되어 조상을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속된 욕망을 갖게 되었다. 주술적인 종교성을 띠게 된 것이다. 제사상에 물린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음복(飲福)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통제례 사상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초대 선교사들은 한국의 제례행사를 외형만 보고 우상숭배로 속단했고, 초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의 깊은 진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단순히 선교사들의 판단에 따라 조상의 기제사를 교인들에게 금했다.

선교 100년을 지나면서 아직도 초창기에 그릇된 인식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오늘날까지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 때문에 기독교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장애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결국 전통 제례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 부족과 참다운 복음정신에 대한 일반의 인식 부족이 충동을 불러온 셈이다. 기독교는 이제라도 이러한 점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이해시켜 주면서 종전의 제례행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변화시켜 교인들도 신앙상 거리낌없이 조상의 기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 충동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을 경주할 때 교회는 진정한 한국 교회로 거듭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소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정신이 완전히 뿌리내릴 때 한국 교회는 불의한 것들로부터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도덕적 윤리적 보루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 응답

질문 : 세계 최고의 교회 성장률의 요인으로 월남 교인들의 전도 활동, 형무소 전도 운동, 군복음화 운동, 경찰 선교, 정부행정기관, 각 기업체, 사회단체의 신앙

운동의 다섯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교 정책이 세속적인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정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정치 쪽에 협조하는 반대하든지 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태도를 한국 기독교가 성격적으로 가지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분열까지도 낳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교회성장의 요인으로 단순하게 교회사 서술에 긍정적으로 평가만하고 고찰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분열에 의해서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지만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결과로 났다고 보셨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분열에 의한 수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지향적이라기보다는 집단간의 경쟁을 준거로 한 그런 수의 증가라고 했을 때 증가된 수의 질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 개신교가 리더십 크라이시스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다시 출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변 : international, interdenominational, interracial의 세 가지를 초월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사회비판이나 정치비판까지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제 정치행위에 얽매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교회는 발전이 안됩니다. 정치사회는 언제나 유동적이지만 교회는 역사가 시작되어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써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는 얼마든지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 분열과 개체교회 분열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단일 교단으로 제일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남침례교입니다. 그 이유는 한 교회가 2백명이면 의무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정규교육으로 목자들의 충원이 안 되니까 Baptist church의 신학교는 천명씩, 1500명씩을, 평신도들이 사명감만 있으면 단기간 훈련시켜서 내보내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뻗어 나간 것이 제일 많은 교세확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단기간에 그렇게 분열되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는 인위적인 면에서 잘못되었고 하나는 뜻을 거슬린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공헌을 한 것이라고 굳이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 목사들이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운동에 있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육기관도 세우고 의료기관도 세우고 사회사업

도 하나까 자연히 발언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규모가 적은 교회가 그걸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교회는 사회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며, 덧붙인다면 교회지도자들을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켰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약점도 있습니다.

질문 : 진정으로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면 전통문화와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라는 것은 사실상 양측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문제의 경우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과 신앙의 조정과 수정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유교나 불교나 전통문화를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에 의해 기독교가 해석됨으로써 기독교가 체질이 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한국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거기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조상을 신으로 본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용법, 아니면 개념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통 입장에서 보면 신이라는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神明, 조상신, 신들린다 할 때의 신, 정신이라고 그럴 때에도 '신' 자가 들어가는데 모두 神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신은 하나님이나 유일신인데, 문제는 말이 똑같고 내용은 다르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 되어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답변 : 내 5대조가 유한중이라 하는 분인데, 그 분의 제문 가운데 하나를 보면, 돌아가신 분의 생의 모습을 제사 지낼 때 축문으로 하는데, 생전에 사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제문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제례에서 근본 정신은 不忘 祀 日, 즉 제사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관이 뚜렷해야 하는데,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교는 하나의 학문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의 법도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신은 신이라고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교에서 조상의 이름을 써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신주, 또는 위패라고 합니다. 이 신주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신이 아닌 데 신의 위치에 받들어 놓고 하나의 가공적인 신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의 교훈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

나고 불상을 남기지 시작을 했습니다.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에 기독교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문화 가운데 관혼상제 네 가지가 중요한 건데 이 가운데 관혼상이 다 지금 바뀌어졌는데, 기제사, 제례만 고집을 해서 기독교가 불효한 부모를 모르는 종교라고 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회자 :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면 절대가 아니라 상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세계 문화를 형성하는 주역을 담당했던 종교들이 한데 모여서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경우에, 과연 모든 종교의 신념체계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뭔가 하는 점 하나와, 종교란 과연 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 : 복음화하고 토착화하고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목적은 하나인데, 토착화가 복음화되어야지, 복음화가 토착화가 되면 안된다고 내가 지적한 것은 한국이 이교 세계인데, 토착화 되면 기독교는 이교화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기독교화시키는 선교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 데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리차드 니버의 신학적인 논쟁에 의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데, 기독교인의 사명을 정말로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둘러보고 그 다음 거기에 맞는 가장 지혜스러운 해답을 찾는 게 옳다고 얘기했는데 감명 깊었습니다. 교회의 내용적인 성장에 비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10년 단위로 자꾸 사회적인 권위가 낮아집니다. 학력 수준으로 봐도 목사님들의 학력 수준이 평균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를 위해 더 현명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연구과제이고 또 하나는 신학자들과 한국교회의 지도자님들에게는 도덕적인 책임이 심각한 문제로 당면한 것 같습니다.

답변 : 기독교가 우리 민족사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해방 전에는 그것을 먼저 캐치를 해서 앞장을 서니깐 사회의 발언권이 강해졌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하니 교회가 그 문제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제 시대 때

와는 달라서 기독교가 사회 문제 전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빛의 역할이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모릅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전망하고 사회를 개혁해 주는 것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하느냐고 할 때, 목사가 그걸 못합니다. 학교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목사에게 제공해주고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일단 목회하시는 분으로 전제를 했을 때, 목사님으로 40년 지내시면서 한국의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신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목회자는 목회자의 분야가 있고 학자는 학자의 분야가 있고 또 사회 운동하는 사람은 사회운동의 분야가 있는데, 자기 분야에 충성을 안하고 남의 분야만 자꾸 간섭을 하면 골치 아픕니다. 학문하고 실제 목회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학문의 세계이고 목회와는 다릅니다. 학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충성을 해야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잘못되면 복음의 권위까지 상실시켜 버리고 맙니다.

사회자 : 한국 교회의 반세기, 해방의 반세기 동안에 교회는 성장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반성해 볼 때 한국 신학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반세기 역사에 어떤 기여를 했던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 해방신학에서 맨 첫 번째로 들어 온 사람이 서남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 우리 한국사회에는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가 부목사를 초청해서 목사안수를 시켰습니다. 그는 지금 국제적으로 나가서 토론을 하고, 전주의 한일 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그의 해방신학은 시기가 너무 빨랐습니다.

질문 : WCC가 파시즘 세력에 대한 양심적인 고백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우

리나라에도 EYC라든가 YMCA라든가 하는 청년운동이 이런 경향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YC같은 부분은 크게 과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과격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 EYC하고 교회청년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CE라고 하는 기독교청년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운동의 방향설정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느냐 하는 관점의 얘기입니다. 과격하다는 것은 한국민족과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 내의 그늘진 면을 팔아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면에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몇 사람들이 한국의 정치나 사회의 이면을 들고 나가서 돈을 달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정부운동을 하고, 따라서 마찰이 생겨서 정당한 기독교 행사, 정당한 복음 선교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말한 것이지, 그들이 한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